

공무원의 횡령과 절도범죄의 비교연구

Comparison study on embezzlement and larceny crime of public servant

이승우(Lee, Seung Woo)*·구경렬(Koo, Kyung Ye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verifying factors which influence embezzlement crime representative types of white-collar crime and larceny crime representative types of common crime, and cross-compare based on this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 'embezzlement and larceny crime' as the dependent variable, 'self-control' presented in the Theory of self-control and 'need-control' presented in the Theory of need-control.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limited to public servants 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 applied to embezzlement crime. Especially, when investigate public servant on the criminal survey, because there is a concern that responses could be weighted to bias tendency, the questionnaires included several specific scenarios based on precedent study.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public servant had higher tendency when they had low self-control, when they are single, when they are low-age bracket, when they had low need-control, when they are belonging to low-income bracket, and it appeared that they had higher tendency when they had low self-control. These results are proved that self-control is the most powerful variable, and it corresponded with the earlier study results which proved that attributes of white-collar crime and common crime are not severely different.

Key words: public servant, embezzlement crime, larceny crime, self-control, need-control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범죄학 박사

I. 서론

금융감독원이 2015년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업종 금융기관에서만 총 361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횡령금액은 1,544억 원에 달하였다. 한편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징계문책을 받거나 고발 등을 받은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98건으로 그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 범죄는 기존에 중시되었던 전통적인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화되고 지능화된 범죄유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래의 범죄학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지배계층에 의한 범죄행위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하위계층에 의한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상위계층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상위계층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존의 범죄학의 한계로 지목되었다.

1939년 Sutherland가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범죄학에서 간과되어왔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계층에 대한 범죄에 관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초기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는 화이트칼라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범죄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일반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를 일반범죄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표적인 이론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주창한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으로, 그들은 기존의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자기통제이론의 핵심은 모든 범죄는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무계획적 혹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범죄행위가 개인별로 차이나는 이유로 순간적인 만족, 쾌락, 스릴 등의 충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에 모든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은 자기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통제이론은 개인적 특성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화이트칼라범죄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화이트칼라범죄를 일반범죄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력 여하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료나 근무환경 등 총체적인 환경을 통제하고자하는 욕구가 화이트칼라범죄에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통제욕구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통제욕구이론은 현재의 쾌락 등을 중시하는 자기통제이론과 달리, 자신의 행위로 인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또한 자기통

제이론에 비해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 체계화된 조직, 범죄의 책임자와 피해자의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 비물리적인 범행수법,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고, 발각되더라도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혹은 재력 등으로 자기방어를 행하거나 관대한 처벌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화이트칼라범죄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행정부,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화이트칼라범죄의 심각한 해악에도 불구하고, 일반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범죄의 성격이 복잡하며,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은 계층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학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나 유형 등 개념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이윤희, 2011).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자기 통제이론과 통제욕구이론을 적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화이트칼라범죄와 일반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상호비교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

화이트칼라범죄는 1939년 Sutherland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가 그 직무과정에서 행한 범죄로 정의된다(Sutherland, 194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범죄가 아니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조직 차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중점을 맞출 것인지,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한 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가 되며,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만 국한할 것인지, 지능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죄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이 의문시되고 있다(현대사회연구소, 1993).

이처럼 오늘날까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만,

Sutherland와 Geis(1949)가 제시한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로, 기존의 범죄학의 한계로 제시된 상위계층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의 결과로 이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위계층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지만, 상위계층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범죄학 연구에서는 주로 하위계층에 대한 범죄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기업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허위광고, 탈세, 뇌물수수, 횡령 등 개인의 심리적,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죄를 포함하여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은 미국 연방수사국과 미국 범죄학회에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횡령, 사기, 위조 등 가장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 for theft), 둘째,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공직사회에서 저지르는 화이트칼라 범죄(crime against public administration), 셋째,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범죄, 노동범죄 및 불공정거래 등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거래와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regulatory offence)이다(최영인, 엄건령, 2005).

또한, Coleman(1985)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죄동기의 차이에 따라 조직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조직체 범죄(organizational crime)와 개인들이 그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직업적 범죄(occupational crime)로 분류했으며, 전자는 허위광고, 탈세, 가격 담합 등이 해당되고, 후자는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Coleman의 분류는 기존의 범죄유형에서 더 나아가 조직을 위해 행해지는 범죄와 개인의 사익을 위해 행해지는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는 전문적인 지식, 체계화된 조직, 범죄의 책임자와 피해자의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 그리고 비물리적인 범행수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고, 소수의 피해자가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인지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범죄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 혹은 재력 등으로 자기방어를 행하거나 관대한 처벌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최인섭·최영선, 1996).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는 궁극적으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장하며, 이에 기업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유형에 비해 보다 더 위험한 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Sutherland 1940, Braithwaite 1985).

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화이트칼라범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접근 한계와 아직까지 화이트칼라범죄 해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이운호, 2011).

2.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자기통제이론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의 통합을 시도한 이론으로 모든 범죄란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무계획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지만, 개인의 특정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개인의 특정 성향은 범죄가 주는 쾌락, 스릴 등의 순간적인 충동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자기통제력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범죄 상황에서 범죄욕구 혹은 충동을 개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능력여부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전통적인 범죄학의 관점에서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범죄와 상위계층에 의해 범해지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재하며, 이에 일반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는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통제이론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모든 범죄의 원인을 자기통제력을 주요인으로 고려된다. 이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는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라는 공통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화이트칼라범죄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자기통제력이 낮아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자기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에서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하고, 개인의 특성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기통제력의 형성이 유아기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의한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전반적인 전제나 내용이 비현실적, 범죄유형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을 무시,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Grasmick et al, 1993). 특히, 범죄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에도 한 가지 이론으로 전통적인 범죄를 비롯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통적인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Benson & Moore, 1992; Clinard & Quinney, 1973; Simpson & Piquero, 2002; Steffensmeier, 1989; Weisburd et al, 1990).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도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일반범죄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또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으로만 모든 범죄행위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상황적 조건인 범죄발생의 기회가 전제되어야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범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만, 범죄의 유혹이 크지 않거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3. 통제욕구이론(desire for control theory)

통제욕구이론은 자기통제이론과는 달리, 화이트칼라범죄를 일반범죄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자기통제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화이트칼라범죄와 일반범죄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통제욕구이론은 화이트칼라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통제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통제욕구는 자기 자신의 통제를 의미하는 자기통제력이 아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료나 근무환경 등 총체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즉, 통제욕구는 일상적인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바람으로 정의된다(Piquero et al, 2005).

통제욕구이론에서는 범죄의 기회라는 상황적 측면보다는 범죄자 개인에게 중점을 맞추고 있다. 통제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결단력, 그리고 활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직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 또한 통제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며, 반대로 실패가 우려될 경우, 주변 상황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조성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실패를 하였을 경우, 앞선 성공과 반대로 그 실패의 원인을 타인의 책임 등 외부적 환경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Schoepfer et al, 2014; Burger & Cooper, 1979).

이처럼 통제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통제 상황이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신한다(Burger, 1992; Burger & Cooper, 1979; Burger & Schnerring, 1982). 이에 자신이 가진 능력 혹은 수단을 넘어서면서까지 더욱 위험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도전하려 한다. 결국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범죄자의 행위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iquero et al, 2005).

이러한 통제욕구이론은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설명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기통제이론보다 화이트칼라범죄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Reed & Yeager, 1996; Piquero et al, 2005). 자기통제이론에서의 범죄자는 그들의 행위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게 되는 쾌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지향적인 개념인 반면에, 통제욕구이론에서의 범죄자는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인해 미래에 그들 스스로에게 미칠 영향을 손익계산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자기통제이론보다 통제욕구가 화이트칼라범죄, 그 중에서도 기업범죄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검토

1) 자기통제이론 관련 연구

국내외 자기통제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Arneklew et al, 1993; King et al, 2014; Shoda, et al, 1990; Newman et al, 1997; 김원희·이동훈, 2010; 이성식, 2007; 진혜민·배성우, 2012). 반면 자기통제력과 화이트칼라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소수만이 존재하고 있다(Benson & Moore, 1992; Simpson & Piquero, 2002; Langton et al 2006; 박영주, 2013; 황현동·이창무, 2016).

먼저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과 일반범죄 및 화이트칼라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한 Benson과 Moore(1992)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횡령과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범죄보다는 일반범죄에 보다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화이트칼라계층은 아니지만, 미래의 화이트칼라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MBA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범죄에 자기통제이론과 조직이론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Simpson과 Piquero(2002)는 기업범죄에 있어 교통신호위반, 사고, 이혼,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조직이론에서 제시된 요인이 기업범죄에 더욱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피고용인의 절도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한 Langton과 그의 동료들(2006)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피고용인의 절도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지만, 피고용인의 절도범죄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보다는 일반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외국의 사례와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자기통제력과 경찰의 부패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 박영주(2013)의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뇌물수수과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의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업범죄와 관련해서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 그리고 산업기술유출 간의 관계를 규명한 황현동과 이창무(2016)의 연구에서 내부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의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통제욕구이론 관련 연구

통제욕구이론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는 Burger & Cooper(1979)가 통제욕구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실증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통제욕구이론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에서는 주로 통제욕구와 관련된 행동적 특징을 규명

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며, 나아가 통제욕구와 관련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Burger & Arkin, 1980), 도박(Burger & Cooper, 1979; Burger & Schnerring, 1982; Burger & Smith, 1985), 태도변화(Burger & Vartabedian, 1980), 우울(Burger, 1984), 불복종(Burger, 1987), 성취 욕구(Burger, 1985) 등이 통제욕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범죄학분야에서는 통제욕구와 기업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한 Piquero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 통제욕구가 높을수록 기업범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기통제력은 기업범죄에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통제욕구보다 일반범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 중 어떠한 요인이 기업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지 검증한 Langton과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 통제욕구가 높을수록 기업범죄에 대한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통제욕구가 기업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Piquero와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통제욕구가 상호작용하여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4)에서 기존의 화이트칼라범죄가 주로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상점 점원의 횡령이라는 다른 유형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통제욕구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횡령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제욕구가 횡령범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Craig와 Piquero(2016)의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욕구의 정도에 따라 화이트칼라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감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높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통제욕구에 따라 화이트칼라범죄 의도를 낮춘다는 관계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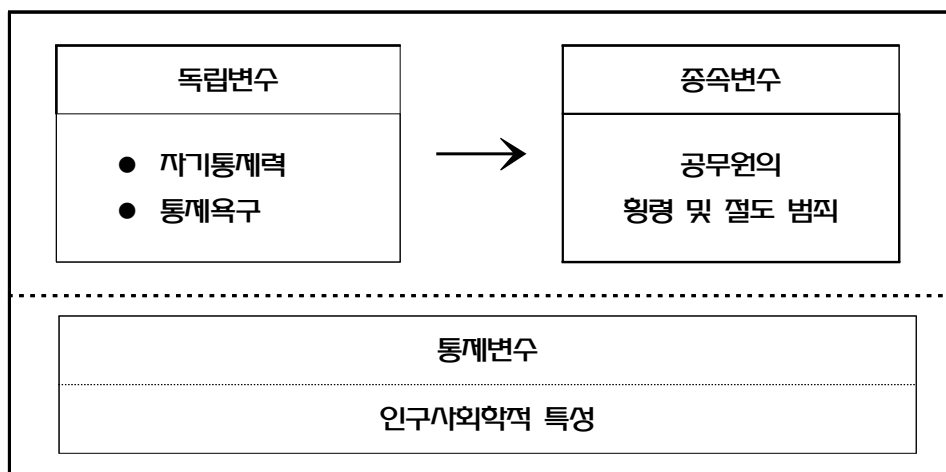
Ⅲ. 방법론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횡령범죄와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를 상호 비교하여,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독립변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일반범죄에서 주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기통제이론 중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이론 중 통제욕구를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화이트칼라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횡령범죄와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 총 2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과 절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당위론적인 응답으로 편중될 결과가 높기에,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범죄시나리오를 토대로, 형법상 횡령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하여 편중된 응답결과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공직자로서 징계책임의 문제가 유지되어 광의의 횡령범죄로서 연구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의 수집은 감사교육원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내용의 보다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수정·작성한 후에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 응답 중 한 항목이

라도 응답이 누락되었다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956부이며, 응답률은 95.6%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1) 횡령범죄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대표하고 있는 횡령범죄로 한정하였으며,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범죄 시나리오를 국내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묻는 총 9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충분히 그럴 수 있다) ~ 5점(매우 부적절하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α = .761).

“A는 ○○부처에서 지출관의 보조자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계약직 직원들이 보수에서 공제한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국세청 등에 납부하는 등 ○○부처 국고금 등의 출납 및 보수공제금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평소 노모와 자식 3명을 봉양하면서 아이 교육비, 노모 병원비 등으로 월급보다 평균 2백만 원을 더 지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계속하여 다음 달로 이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 되자 우선 급한 대로 자신이 담당하는 보수공제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쓰고 다음 달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다시 매꿔 넣으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므로써 국고 출납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고 공금도 채워지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수공제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 동 금액을 매꿔 넣었다.”

(2) 절도범죄

이 연구의 다른 종속변수는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로 한정하였으며,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절도범죄 시나리오를 국내 사정에 맞도록 각색하여 재구성하였다. 공무원의 신분이기에는 하지만 근무 후 일반인으로서 편의점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절도를 하게 되는 상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묻는 총 9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충분히 그럴 수 있다) ~ 5점(매우 부적절하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절도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α = .827).

“B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내와 자식 2명이 생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보수를 받는다. 그는 어느 일요일 저녁에 알람시계 건전지를 사러 근처 편의점을 갔다. 그의 집은 시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이 되면 다음날 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음날 월요일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가 있어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평소 아침잠이 많은 그로서는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 건전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는 편의점 문을 닫을 때 쯤 되어서야 자신에게 건전지를 살 돈이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늦었다. 자신이 사려는 건전지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크기였다가 가진 돈이 건전지를 살만큼 아니지만 작은 탄산음료 정도는 살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가 편의점에서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고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알람시계 건전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2) 독립변수

(1) 자기통제력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 제시한 범죄 상황에서 범죄 욕구 및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여부로,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을 국내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총 19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5점(본인에게 해당된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α = .852).

(2) 통제욕구

이 연구의 또 다른 독립변수인 통제욕구는 일상적인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지배하고자하는 바램으로,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Piquero et al, 2005).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을 국내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통제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5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5점(본인에게 해당된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α = .788).

3)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유무, 소득수준, 직급, 근무기간 등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1) 30대 미만,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혼인유무는 미혼은 '0', 기혼은 '1'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1) 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직급은 1) 9급, 2) 8급, 3) 7급, 4) 6급, 5) 5급, 6) 4급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직급에서 공공기관은 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급수¹⁾로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1) 0~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15년 미만, 4) 15~20년 미만, 5) 20~25년 미만, 6) 25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횡령 및 절도범죄와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 등의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횡령 및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인 공무원의 횡령과 절도범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상호비교하기 위해 총 2번의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도구는 STATA 13.0 통계패키지이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분석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전체 표본은 956명이며, 성별은 남자가 77.2%(738명)로 여자의 22.8%(218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31.3%(29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대 미만이 29.0%(277명), 30대가 24.0%(229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15.8%(151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연구대상자의 약 53.0%가 30대 이하로 대체로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78.7%(75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14.5%(139명), 전문대 졸업이 4.1%(39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1) 정부로 파견 나오는 공공기관 직원의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산정하는 직급 조정기준을 적용함.

2.7%(26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대체로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인유무는 기혼이 59.1%(565명)로 미혼의 40.9%(391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을 의미하는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이 32.3%(30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20.6%(197명), 400~500만원 미만이 18.4%(176명), 300~400만원 미만이 16.8%(161명), 그리고 200만원 미만이 11.8%(113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대체로 연구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급을 살펴보면, 7급이 57.7%(55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6급이 19.5%(186명), 4급 이상이 9.9%(95명), 5급이 9.6%(92명), 8급이 1.9%(18명), 그리고 9급이 1.4%(13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7급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종사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59.9%(57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0년~15년 미만이 11.2%(107명), 20~25년 미만이 9.5%(91명), 15~20년 미만이 7.9%(75명), 5~10년 미만이 6.0%(57명), 그리고 25년 이상이 5.5%(53명)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즉, 이는 앞선 직급과 비율이 유사하게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연구대상자들의 근무기간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명	%
전체		956	100
성별	남자	738	77.2
	여자	218	22.8
연령	30대 미만	277	29.0
	30대	229	24.0
	40대	299	31.3
	50대 이상	151	15.8
학력	고등학교 졸업	26	2.7
	전문대 졸업	39	4.1
	대학교 졸업	752	78.7
	대학원 이상	139	14.5
혼인 유무	미혼	391	40.9
	기혼	565	59.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3	11.8
	200~300만원 미만	197	20.6
	300~400만원 미만	161	16.8
	400~500만원 미만	176	18.4
	500만원 이상	309	32.3

구분		빈도	
		명	%
직급	9급	13	1.4
	8급	18	1.9
	7급	552	57.7
	6급	186	19.5
	5급	92	9.6
	4급 이상	95	9.9
	5년 미만	573	59.9
근무 기간	5~10년 미만	57	6.0
	10년~15년 미만	107	11.2
	15~20년 미만	75	7.9
	20~25년 미만	91	9.5
	25년 이상	53	5.5

2. 주요변수의 기술분석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횡령범죄를 살펴보면, 평균 1.80(표준편차=0.51)으로 제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횡령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범죄를 살펴보면, 평균 1.85(표준편차=0.61)로 제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절도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선 횡령범죄의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횡령범죄와 절도범죄의 분포의 범위는 모두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 자기통제력은 평균 3.65(표준편차=0.52)로 제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욕구는 평균 3.55(표준편차=0.45)로 제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통제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지만, 앞선 자기통제력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의 분포의 범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제시되었으며, 통제욕구의 분포의 범위는 최솟값 1.5에서 최댓값 5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는데,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이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배병렬, 2014: 176-177).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기준치보다 낮게 제시되었다.

〈표2〉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횡령범죄	956	1.80	.51	1	5	.87	4.92
절도범죄	956	1.85	.61	1	5	.71	3.56
자기통제력	956	3.65	.52	1	5	-.03	3.45
통제욕구	956	3.55	.45	1.5	5	.03	3.90

3. 횡령 및 절도범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무원의 횡령 및 절도범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중 횡령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횡령범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대 미만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제시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19.0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4.1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혼인유무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t값 7.4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12.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은 9급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급, 8급, 4급 이상, 5급, 그리고 6급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직급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4.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횡령범죄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5~10년 미만, 10~15년 미만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5년 미만을 제외한 기간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F값 6.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중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횡령범죄와 다르게 소득수준에서만 절도범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은 300~400만원 미만이 절도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0~500만원, 200~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소득수준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F값 3.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3〉 횡령 및 절도범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구분	횡령범죄			절도범죄		
	Mean	Std.D	t/F	Mean	Std.D	t/F
성별	남자	1.79	1.07	1.86	0.63	-0.65
	여자	1.83		1.83	0.54	
연령	30대 미만	1.98	19.06***	1.92	0.61	2.04
	30대	1.77		1.81	0.57	
	40대	1.70		1.83	0.61	
	50대 이상	1.69		1.81	0.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1.97	4.12**	1.73	0.66	2.10
	전문대 졸업	1.84		2.06	0.67	
	대학교 졸업	1.81		1.85	0.60	
	대학원 이상	1.67		1.81	0.63	
혼인 유무	미혼	1.94	7.43***	1.89	0.61	1.73
	기혼	1.70		1.82	0.6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98	12.52***	1.88	0.62	3.51**
	200~300만원	1.94		1.89	0.60	
	300~400만원	1.80		1.93	0.66	
	400~500만원	1.70		1.90	0.64	
	500만원 이상	1.70		1.75	0.55	
직급	9급	1.87	4.05**	1.79	0.44	0.69
	8급	1.82		2.00	0.77	
	7급	1.86		1.86	0.60	
	6급	1.69		1.86	0.62	
	5급	1.71		1.77	0.63	
	4급 이상	1.72		1.81	0.61	
근무 기간	5년 미만	1.87	6.56***	1.88	0.61	1.06
	5~10년 미만	1.68		1.86	0.57	
	10년~15년 미만	1.66		1.81	0.62	
	15~20년 미만	1.71		1.77	0.64	
	20~25년 미만	1.70		1.85	0.60	
	25년 이상	1.68		1.72	0.63	

***p< 0.001, **p< 0.01, *p< 0.05

4. 상관관계분석

〈표4〉는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판단 기준인 0.9이상의 상관계수

를 넘는 변수들이 없었으며, 대체로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01 내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종속변수 중 횡령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에서는 부(-)적 영향을, 학력에서는 부(-)적 영향, 혼인유무에서는 부(-)적 영향을, 소득수준에서는 부(-)적 영향을, 직급에서는 부(-)적 영향을, 근무기간에서는 부(-)적 영향을, 그리고 독립변수 중 자기통제력에서는 부(-)적 영향을, 통제욕구에서는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통제욕구가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중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으며, 독립변수 중 자기통제력에서는 부(-)적 영향을, 통제욕구에서는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통제욕구가 낮을수록, 절도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부(-)적 영향을, 혼인유무에서는 부(-)적 영향을, 직급에서는 부(-)적 영향을, 근무기간에서는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 통제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정(+)적 영향을, 연령에서는 정(+)적 영향을, 학력에서는 정(+)적 영향을, 혼인유무에서는 정(+)적 영향을, 소득수준에서는 정(+)적 영향을, 직급에서는 정(+)적 영향을, 근무기간에서는 정(+)적 영향을, 그리고 자기통제력에서는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통제욕구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4〉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545***	1									
3	-.035	.021	1								
4	-.218***	-.061	.141***	1							
5	-.106**	-.023	.078*	.084**	1						
6	-.234***	-.056	.187***	.757***	.105**	1					
7	-.215***	-.086	.026	.588***	.151***	.602***	1				
8	-.113***	-.040	.157***	.529***	.144***	.423***	.435***	1			
9	-.154***	-.062	.022	.577***	.068*	.499***	.415***	.721***	1		
10	-.255***	-.318***	-.021	-.146***	.050	-.116**	-.059	-.097**	-.116***	1	
11	-.177***	-.137***	.098**	.104**	.105**	.092**	.125***	.105**	.104**	.202***	1

1) ***p< 0.001, **p< 0.01, *p< 0.05

2) 1. 횡령범죄의도, 2. 절도범죄의도, 3. 성별, 4. 연령, 5. 학력, 6. 혼인유무,
7. 소득수준, 8. 직급, 9. 근무기간, 10. 자기통제력, 11. 통제욕구

5. 공무원 횡령 및 절도범죄의 영향요인 검증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인 공무원의 횡령 및 절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총 2번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5>이다. 먼저, 종속변수 중 횡령범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변수들은 횡령범죄 변량의 15.3%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변수는 연령, 혼인유무, 소득수준에서 그리고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횡령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해당 변인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자기통제력은 부(-)적 영향을($=-.270$), 혼인유무는 부(-)적 영향을($=-.122$), 연령은 부(-)적 영향을($=-.101$), 통제욕구는 부(-)적 영향을($=-.086$), 소득수준은 부(-)적 영향($=-.080$)의 순서로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주변상황을 통제하고자하는 욕구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20.09로 전체모형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중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변수들은 절도범죄 변량의 11.3%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통제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변수에서는 자기통제력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절도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14.49로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화이트칼라범죄를 대표하는 횡령범죄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Schoepfer et al, 2014; 박영주, 2013). 반면, 통제욕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이 현재 공직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가 아닌 MBA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공무원이 된다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현재 학생신분으로 행정실무를 경험한 적 없는 상태에서 응답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연구지역의 차이로, 미국은 직위분류제가 근간으로 연령 혹은 직급과는 별개로 통제욕구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전통적인 계급체제로 조직구조, 직급 간의 체계가 경직적이고, 명확하여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고위 직급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상급자 지휘에 따라 그 조직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조직의 특성상 개인적인 통제욕구가 상대적 영향이 적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에서 비록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중 통제욕구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화이트칼라라는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라도 일반범죄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또한 통제욕구는 일반범죄보다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Reed &

Yeager, 1996; Piquero et al, 2005)으로 절도범죄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5〉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명	횡령범죄			절도범죄		
	B	SE		B	SE	
상수	3.501***	.174	-	3.602***	.211	-
성별	.003	.038	.003	.039	.047	.027
연령	-.049*	.025	-.101	-.028	.030	-.049
학력	-.053	.029	-.056	.012	.035	.011
혼인	-.127*	.051	-.122	-.007	.062	-.005
소득	-.029*	.014	-.080	-.023	.018	-.054
직급	.032	.022	.066	.012	.027	.020
근무기간	-.021	.015	-.068	-.020	.018	-.055
자기통제력	-.268***	.031	-.270	-.378***	.037	-.321
통제욕구	-.099**	.036	-.086	-.082	.044	-.060
N		956			956	
adj-R2		.153			.113	
F		20.09***			14.49***	

***p< 0.001, **p< 0.01, *p< 0.05

V. 결론

전통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배계층에 의한 전문화되고 지능화된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개념 혹은 유형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이며,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고 있는 자기통제이론 중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이론 중 통제욕구가 실증적으로 해당 범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일반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비교 하였다.

분석결과,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횡령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욕구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

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절도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의 횡령 및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면, 첫째, 범죄 기회의 제거이다. 횡령 및 절도범죄에서 모두 자기통제력이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자기통제력의 형성은 유아시절의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성인기에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모든 범죄를 자기통제력으로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기통제력과 함께 범죄의 기회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문화 혹은 조직 내의 분위기가 도덕적이고 청렴한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공직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멘토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내부감사기능의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을 살펴보면, 2007년에 89.7%이었지만, 2015년은 83.4%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공무원 보수는 현실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은 기본생계비가 부족해서 횡령, 금품수수 등에 대한 범죄의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으며, 또한 범행을 적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수체제로 개선하는 것이 횡령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신규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공직관, 소명의식, 그리고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강화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차이 검증에서 제시되었듯이, 30대 미만에서 횡령 및 절도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은 대다수가 신규공무원으로, 이에 신규공무원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미한 시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했으며,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라도 자기통제이론과 통제욕구이론 외에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이운호. (2011),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최영인 · 염건령. (2005),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현대사회연구소. (1993),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2. 연구논문

- 김원희 · 이동훈.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기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67-1782.
 박영주. (2013), “경찰의 부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1): 175-201.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진혜민 ·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 변수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최인섭 · 최영신. (1994),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현동 · 이창무. (2016), “산업기술유출과 자기통제력, 조직애착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47: 119-137.

국외문헌

1. Books

- Burger, J. M. (1992), *Desire for Control: Personality, social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Plenum Press.
 Clinard, B. M. & Quinney, R. (1973),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oleman, J. W. (1985), *The Criminal Elite*, 5th ed, California: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Sutherland, E. & Geis, G. (1949), *White Collar Crime*, New York: Drysdan.

2. Articles

- Arneklev, B. J., Grasmick, H. G., Tittle, C. R. & Bursik, R. J. (1993),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3): 225-247.
- Benson, M. L. & Moore, E. (1992), Are white-collar and common offenders the same?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critique of a recently proposed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29(3): 251-272.
- Braithwaite, J. (1985), White Collar Crim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1): 1-25.
- Burger, J. M. & Arkin, R. M. (1980), Prediction,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3): 482.
- Burger, J. M. & Cooper, H. M. (1979), The Desirability of Control. *Motivation and Emotion*, 3(4): 381-393.
- Burger, J. M. & Schnerring, D. A. (1982), The Effects of Desire for Control and Extrinsic Rewards on the Illusion of Control and Gambling. *Motivation and Emotion*, 6(4): 329-335.
- Burger, J. M. & Smith, N. G. (1985), Desire for Control and Gambling Behavior Among Problem Gambl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2): 145-152.
- Burger, J. M. & Vartabedian, R. A. (1980), Desire for control and reaction to proattitudinal and counterattitudinal arguments. *Motivation and Emotion*, 4(3), 239-246.
- Burger, J. M. (1984), Desire for Control, Locus of Control and Proneness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52(1): 71-89.
- _____. (1985), Desire for Control and Achievement-Related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520.
- _____. (1987), Desire for Control and Conformity to a Perceived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55.
- Craig, J. M. & Piquero, N. L. (2016),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desire-for-control on white-collar offending: A Replication. *Deviant Behavior*, 37(11): 1308-1324.
- Grasmick, H. G., Tittle, C., Bursick,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 King, R. B. & Gaerlan, M. J. M. (2014), High self-control predicts more positive emotions, better engagement, and higher achievement in schoo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9(1): 81-100.
- Langton, L., Piquero, N. L. & Hollinger, R. (2006), An empiric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elf-control and employee theft". *Deviant Behavior*, 27: 537-565.
- Langton, L., Piquero, N. L. & Schoepfer, A. (2010), Completely out of control or the desire to be in complete control? An examination of how low self-control and the desire-for-control relate to corporate offending. *Crime and Delinquency*, 56(4): 627-647.
- Newman, D. L.,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 Development Psychology, 33(2): 206
- Piquero, N. L., Exum, M. L. & Simpson, S. S. (2005), Integrating the desire for control and rational choice in a corporate crime context. *Justice Quarterly*, 22(2): 252-280.
- Reed, G. E. & Yeager, P. C. (1996), Organizational offending and neoclassical criminology: Challenging the reach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4(3): 357-382.
- Schoepfer, A., Piquero, N. L. & Langton, L. (2014), Low Self-Control Versus the Desire-For-Control : An Empirical Test of White-Collar Crime and Conventional Crime. *Deviant Behavior*, 35(3): 197-214.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Development Psychology*, 26(6): 978.
- Simpson, S. S. & Piquero, N. L. (2002), Low self-control, organizational theory and corporate crime. *Law & Society Review*, 509-548.
- Steffensmeier, D. (1989), On The Causes of White-Collar crime: An Assessment of Hirschi and Gottfredson's Claims. *Criminology*, 27: 345.
- Sutherland, E. (1940), White 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12.
- Weisburd, D., Chayet, E. F. & Waring, E. J. (1990), White-Collar Crime and Criminal Careers: Some Preliminary Findings. *Crime and Delinquency*, 36(3): 342-355.

투고일자 : 2017. 02. 23

수정일자 : 2017. 03. 30

게재일자 : 2017. 03. 31

<국문초록>

공무원의 횡령과 절도범죄의 비교연구

이승우 · 구정렬

이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횡령범죄와, 일반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절도범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횡령 및 절도범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통제력과 통제욕구이론에서 제시한 통제욕구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화이트칼라계층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감사연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공무원에게 범죄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당위론적인 응답이 편중되게 나올 우려가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정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횡령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욕구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고 있었으며, 절도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절도범죄를 보다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횡령 및 절도범죄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화이트칼라범죄도 일반범죄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주제어: 공무원, 횡령범죄, 절도범죄, 자기통제력, 통제욕구